

외투기업 고용증가세



“200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08년 경영실적 기준) 결과에 따르면, 08년 외투기업은 매출 233조원, 고용 31.8만명 및 수출 523억불을 창출하여 매출액, 고용규모 등이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특히, 고용규모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에서 지속 증가하여 외투기업의 국내 고용창출 기여도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도별 고용(만명)은 (06) 25.3 → (07) 28.2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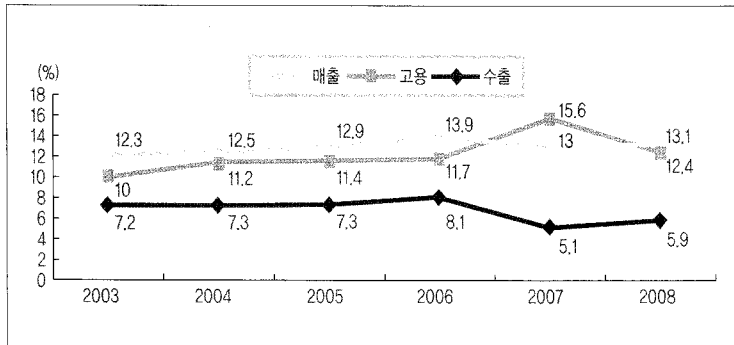
31.8이다.

단, ’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선진국 시장의 불황으로 제조업 외투기업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543 → 523억불)하였다.

한편, 제조업 외투기업은 ’08년 국내전체 매출의 13.1%, 고용의 5.9%, 수출의 12.4%를 차지하였다. ’08년 중 외투기업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성장성 등의 지표에서 국내기업 대비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적 성과 】

	2006			2007			2008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매출 (조원)	124	42	166	128	61	189	165	68	233
고용 (만명)	17.1	8.2	25.3	17.0	11.2	28.2	19.5	12.3	31.8
수출 (억불)	337	-	-	543	-	-	523	-	-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성장성 지표는 유형자산증가율 등이다. 배당성향은 외투기업(35.6%)이 국내기업(17.8%)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노동생산성은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의 1.72배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배당액/당기순이익*100이다.

R&D 집약도의 경우 외투기업이(0.84%) 국내기업(1.71%) 대비 낮은 편으로, R&D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집약도는 연구개발비/매출액*100이다.

외투기업의 '08년 경영활동 특징 및 모기업

【 '08년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의 주요 경영성과 】

	외투기업 (%)	국내기업 (%)	외투기업/국내기업(배)
매출액영업이익률	5.6	5.0	1.12
부채비율	128.7	129.8	0.99
총자산증가율	15.0	16.2	0.93
유형자산증가율	23.7	14.4	1.65
R&D 집약도	0.84	1.71	0.49
배당성향	35.6	17.8	2.0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13.2	66	1.72

* R&D 집약도의 경우 제조업 기준

관련 특이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기업 관련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한국 내수진출(59.1%)을 위해 투자했으며, 이에 따라 내수판매 비중(84.3%)이 매우 높은 편이다.

외투기업의 판매경로는 내수판매 84.3%, 외국으로의 수출

15.8%이다. 투기업의 해외 모기업 상당수가 중국(54.8%), 일본(46.1%), 아세안(43.7%) 등의 지역에 투자 중이며, 한국법인 경영성과는 타지역 대비 좋은 수준이다.

아시아 타지역 법인 대비 경영성과는 좋은 편이거나 평균(87.8%), 나쁜 편(8.8%)이다.

조달활동에서 제조업 외투기업의 원재료 조달경로는 한국 국내조달(36.3%)에 비해 외국으로부터의 조달(60.2%) 비율이 높다. 제조업 외투기업의 주요 해외 조달처는 일본(16.9%), 유럽(15.5%), 미국(11.4%), 중국(9.7%), 동남아(4.7%)의 순이다.

연구개발에서 제조업 외투기업의 55.5%가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며, 47.8%가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한다. 또한, '08년 제조업 외투기업의 75.5%가 해외모기업 또는 계열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및 교육훈련에서 '08년 종업원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37.2%)이 감소한 비율(27.1%)보다 높으며, 외투기업의 81.8%가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였다.